

■ 업계동향 ■

## 現代重工業(株), 이집트서 대형변압기 공급권 수주

現代重工業(株)(代表: 趙忠彙)은 現代綜合商社(代表: 鄭在瑄)와 공동으로 최근 이집트 국영전력청이 발주한 1,500만달러 규모의 변압기 국제입찰에서 수주에 성공했다.

현대측은 이집트 국영전력청이 발주한 대형 변압기 10대의 국제입찰에서 독일 지멘스·일본 도시바·인도 벨사 등을 제치고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변압기 단일품목으로는 국내 최대규모로 이번에 수주한 변압기는 220KV 125MVA의 대용량 전력변압기로 현대중공업에서 제조하여 2000년 상반기중 이집트 카이로에 소재한 6개 변전소에 인도될 예정이다.

현대는 이번 입찰에서 품질을 앞세운 독일, 일본기업과 가격을 앞세운 인도업체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이번 수주로 현대의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대는 이집트 국영전력청이 올해 말까지 추가로 진행하는 4건의 변압기 국제입찰(2,000만달러 상당)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고유가시대를 맞아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는 중동 지역의 전력장비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으로 중동시장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 LG電線(株), 日시장 틈새공략 주효

LG電線(株)(代表: 權文久)이 일본 전선시장의 틈새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몇 년 전만해도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일본시장에서 올들어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있다. 지난해 2500만달러 수출에 이어 올해 4500만달러까지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LG측은 보고 있다. 특히 배전용 케이블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LG전선의 일본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가 전기요금의 인하를 유도함에 따라 일본 전력회사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소요 전력기자재의 해외조달을 확대하는 전략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전력회사는 전체 물량의 30% 정도를 외산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들어 이같은 움직임이 가시화 되자 LG전선은 현지 지사를 본격 가동, 현지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수주량이 늘고 있다. 현재 동경전력, 오키나와전력 등 유수의 전력업체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다.

LG측이 특별히 신경쓰는 부분은 품질. 단기승부가 아니라 장기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품질에서 로컬업체에 뒤지지 않기 위해 JIS(일본 공업규격)를 획득한 것을 비롯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품질규격인 ISO9000, 9001을 따냈다. 일본업체들이 원가절감차 해

외조달을 늘렸지만 품질이 나쁜 제품을 무턱대고 쓸 수는 없기 때문. 더군다나 품질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고 자체시험을 통한 인증을 거친 다음에 선정하기 때문에 까다롭기 그지 없다는 것이 LG측의 설명이다.

또 지난해부터 회사 구조조정을 통해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에 힘입어 수출가격 채산성도 좋은 편이라고 전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일본측에서도 투자 효율성면에서도 이익이 있을뿐더러 올해 해외시장 개척에 역점을 뒀 좋은 결심을 거두고 있다'며 "민수시장 쪽에는 아직 취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중전압 품목도 취급해 품목다각화를 이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 LG産電(株), 국내 첫 민간 전력시험기술센터 설립

국내에 첫 민간 전력시험 기술센터가 건립된다.

LG産電(株)(代表:孫基洛)은 430억원을 투자해 청주공장 내에 민간 전력시험기술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전체 시설 투자를 완료하고 시험가동에 들어갈 전력시험기술센터는 전력시험 설비를 이용, 제품 개발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과전압, 과전류 등을 발생시켜 고장원인을 파악해 사전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민간기업에 의해 설립되기는 이번이 첫

음이다.

이 기술센터에서는 단락발전기, 단락시험변압기, 자동 측정 및 제어시스템을 갖추고 1,500MVA 용량의 단락발전기를 이용해 세계 최대규모인 600v~200kA의 저압 단락차단 시험과 40kv~45kA의 고압단락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LG산전은 기술센터가 완공되면 제품개발 기간을 40%이상 단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그동안 선진국에 의존하던 전력차단 및 전력 응용기술의 자립성을 갖게 돼 선진국과의 제품개

발경쟁을 본격화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산 제품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시험실시를 통해 제품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게 되며, 앞으로 국·내외 공인시험기관과 협력, 각종 국제전기 규격의 제·개정에 참여하여 신기술

을 예측하고 제품에 적용해 신제품 개발을 보다 가속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국내기업이 제품성능을 시험할 때에는 국내 또는 해외의 공인시험 기관을 통하여 성능을 시험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 成原電氣工業(株), F종 절연SYSTEM UL인증 취득

절연물 전문생산업체인 成原電氣工業(株) (代表:李曠浩)는 지난 8월 3일에 UL F종 절연SYSTEM 인증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국내 전기, 전자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MOTOR, TRANS분야의 UL 인증과 관련하여 많은 도움이 되리라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국내의 MOTOR, TRANS 업계에서 신규, 추가 UL인증을 취득하려면 성원전기공업(주)의 허락을 얻어 SYSTEM을 적용하면 된다.

성원의 SYSTEM UL을 적용할 경우 저비용과 TEST기간의 단축이라는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다.

참고로 비용과 시간이 UL에 정식요청할 경우 \$30,000 이상과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성원의 SYSTEM을 적용하면 비용 \$3,000과 2주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가적으로 외화절약과 더불어 기간단축으로 업계의 수출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韓國重工業(株), 'Y2K문제해결' 인증 획득

韓國重工業(株) (代表:尹永錫)은 26일 한국 Y2K인증센터로부터 정보시스템, 생산설비, 연구설비등 종합부문에 걸쳐 Y2K문제해결 인증을 획득했다.

한국중공업은 지난해 3월부터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한 Y2K문제 대책위원회를 구성 Y2K문제 해결을 위한 작업을 추진했으며, 정보부문 393건, 비정보부문 470건등 총 863건

에 대해 이 문제를 끝마친 상태다.

한중은 이외에도 고객신뢰성 확보차원에서 한전등 국내외에 이미 납품한 발전 및 산업설비의 Y2K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 650건의 납품제품에 대한 Y2K문제도 해결했다고 밝

혔다.

한편 한중은 오는 10월부터 Y2K문제 대책 위원회를 구성, Y2K 비상대책위원회로 한단계 높여 2000년 6월까지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 케이디파워(株), MCC패널 셀 발표

케이디파워(株)(代表: 朴鎭朱)는 지능형 모터컨트롤센터(MCC) 패널을 유닛화한 MCC 패널 셀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지난 1년간 3억원을 들여 개발한 MCC패널 셀(상품명 KEMP)은 단위 모터의 특성을 스스로 학습해 모터를 감시·제어해주는 기존 MCC패널을 유닛화한 제품으로, 크기가 기존 제품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피크 및 역률을 자동으로 제어해주고 과전류·지락전류·부족전류·결상·역상등으로부터 계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제품은 특히 100% 디지털 방식으로 설계돼 있어 타이머·스위치·전자식 과전류계

전기·보조접점 등을 별도의 회로구성없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고장 요인도 대폭 줄어들었다. 이 제품은 또 RS-485포트 외에 RS-422포트를 통해 원방감시가 가능하며 최대 256개의 모터까지 연동, 제어할 수 있다.

케이디파워는 이 제품이 전기요금을 최대 20%까지 절감할 수 있는데다 가격도 기존 제품에 비해 절반 정도로 저렴해 일반 건물은 물론 석유화학·원자력발전소 등 플랜트 설비로 이용 분야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日進産電(株), 일진전선으로 재탄생

154kV 초고압케이블을 비롯 절연전선, 제어용케이블 등 각종 전력케이블 전문생산업체인 日進産電(株)(代表: 李教珍)이 9월 1일부

터 日進電線(株)으로 회사명을 변경·사용한다. 일진측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상호로 사용해오던 일진산전이 전선품목을 전문적으로

생산·공급해와 고객들이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업이미지개선(CI)을 위해 일진전선으로 변경케 됐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교진 대표이사는 "이번 상호변경과 더불어 일진전선은 앞으로 다양하 분야로의 품목 확대 보다는 전선에만 초점을 두어 집약적산업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고 밝히고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5년 이내에 세계적인 우량 전선업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일진전선은 지난 '94년 자본금 350억원을 출자·설립, 종업원 160명에 지난해 매출액은 472억원을 달성하는 한편 올해는 7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 회사는 지난 6월 비상장기업으로는 국내 최초로 통신케이블에 대한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국제금융공사(IFC)로부터 1,500만달러의 외자를 유치, 경영의 활기를 띠고 있다.

## 韓國電氣研究所, 전력산업구조개편 기술개발정책 토론회 개최

韓國電氣研究所(所長: 權寧漢)는 1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기술개발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산자부의 과제로 전기연구소가 마련한 전력기술진흥계획 시안에 대한 공청회 성격으로 전기연구소는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시행한다.

이날 행사는 서울대 박종근 교수의 사회로 본회 공창덕 상근부회장을 비롯 전북대 김동용 교수, 조선일보 모태준(과학기자클럽 이사), 연세대 박상희 교수(한국전기학회 회장), 고려대 송길영 명예교수, 서울대 이승훈 교수, 아주대 최기련 교수, 서울대 한민구 교수(학술진흥재단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 韓國電力公社, 발전부문 6개 회사 분리방안 확정

韓國電力公社(社長: 崔洙乘)는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한국전력이 수행하였던 발전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하여 6개의 발

전회사로 분리하는 방안(Grouping)을 확정하였다.

이번 작업은 한전이 금년 4월 자체 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주간자문사인 앤더슨 컨설팅(Andersen Consulting)의 시안을 받아 산업자원부 등 정부와 협의를 거쳐 마무리하였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한전은 현재 가동중인 발전소 및 건설중인 수·화력발전소 42개소를 5개의 수·화력 발전회사에 배분하고, 원자력 발전소는 별도의 1개 발전회사로 분리, 총 6개의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원자력발전은 국내에너지 수급환경, 원자력 기술개발, 신규건설능력 및 KEDO사업 등을 감안하여 단일회사로 하되, 회사내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4개 발전단지별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수·화력발전소를 분할하는 원칙은 상업 측면 및 기술 측면을 고려하여 각 발전회사별로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하였다.

배분된 결과를 보면 24시간 가동이 가능하

發電會社 分離(案)

구 분		수 · 화 력					원 자 력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운전중	기 저	삼천포 (3,240)	보령 (3,000)	태안#1~4 (2,000)	하동#1~4 (2,000)	당진#1, 2 여수1발 (1,500)	고리#1~4. 영광#1~4. 월성#1~3. 울진#1~3
	중 간	영동, 여수2발 (825)	서천, 서울, 인천 (1,938)	평택, 군산 (1,466)	부산, 영월, 울산3발 (710)	동해, 울산1발 (2,200)	-
	첨 두	분당복합, 무주양수 전 수력 (2,035)	보령복합 (G/T) (1,200)	평택복합, 서인천 1, 2 삼랑진양수 (2,880)	서인천 3, 4 청평양수 (2,200)	울산2발, 일산복합 (2,100)	-
	용량(MW)	6,100	6,138	6,346	4,910	5,800	12,016
건설중	착 공	-	양양양수, 보령복합 (S/T)	태안#5, 6 (1,000)	하동#5, 6 (1,000)	당진#3, 4 산청양수 (1,700)	영광#5, 6 울진#5, 6 월성#4
	미 착 공	영 흥 (1,600)	-	청송양수 (600)	부산복합 (1,800)	-	-
	용량(MW)	1,600	1,600	1,600	2,800	1,700	5,700
용량총계(MW)		7,700	7,738	7,946	7,710	7,500	17,716

※ 문의처 : 구조조정실 구조개편팀 부장 이형철( Tel. 3456-6170)

고 각 사의 주 수입원이 되는 석탄발전소인 삼천포, 보령, 태안, 하동 및 당진발전소를 주축으로 하며 각 사별 평균용량은 약 7백 7십만kW가 되도록 하였다.

한편 발전부문이 분리되면 현재 한전의 인력 35,000명중 46%인 약 16,000명이 발전회사로 이관되고, 자산은 62조원중 55%인 34조원이 발전회사로 분리된다.

향후 추진일정은 '99. 9월까지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10월에 이사회, 11월에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가칭)이 제정되는 즉시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할 예정이다.

발전회사별 발전소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앞의 표와 같다.